

간호학생의 노인관련 지식 및 태도조사

이 은 자*·강 익 화**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진적인 의학의 발달,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차 연장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구성 비율이 7.0%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라 하며,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8.3%, 2005년 9.1%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 14.3%, 2026년 20.8%, 2030년에는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와 같이 노인인구수 특히 80세 이상의 후기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들의 기본요구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노화과정에서는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의 타인 의존도가 심화되며 혼히 병발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는 어느 시점에서는 노인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기

도 한다(김영숙, 1994).

반면에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쇠퇴로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도 건강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점 외에도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은 노인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고 있다. 즉 일터에서는 오랜 경험을 쌓아온 노인의 지식이 더 이상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노인이 확고한 지위를 누려온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부부중심의 핵 가족제도가 발달하면서, 가족과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는 전락되고 말았다(이광규, 1989).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이용률은 아직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노인인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전체 의료비 급여의 17~18%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의료비가 15년 전에 비해 82배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또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01년 741,000명에서 2011년에는 1,141,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05).

이처럼 노인인구와 장기 요양보호 노인의 증가로 보건의료요구와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간호교육과정에서 노인간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간호학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1981년 처음으로 독립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홍여신,

* 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ejlee57@hanmail.net)

** 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송미순, 1985), 2000년도 4년제 대학의 80%, 3년제 대학의 58%, 대학원 과정의 63%가 노인간호학을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전시자 등, 2001).

더욱이 연구에 있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가 1970년대-1980년대에 이루어져 노인간호학 개설 이후 변화양상을 볼 수 있는 최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간호와 그 질은 간호사들의 태도에서 반영된다고 하였으며, 건강소비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건강소비자가 제공받는 간호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ompebell, 1971).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간호에 대한 요구와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 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노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를 확인하여 노인 간호교육을 계획하는 간호교육자 및 임상행정가들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를 파악 한다.
- 2)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간호학생의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간호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직접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6월1일부터 6월 14일까지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4 문항, 노인관련 특성 4문항, 노인과의 관계 3문항, 노인관련 지식 25문항, 태도 20문항으로 총 5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1998)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 백영주(2002)가 한국노인 실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술에 대해 응답자들이 맞는지, 틀린지 혹은 잘 모르는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노화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사실과 가장 일반적인 편견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짹수 문항은 모두 참이고, 홀수 문항은 모두 거짓으로, 지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지식 총점은 최고 25점에서 최저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태도측정을 위하여서는 한정란(2004)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정란(2004)의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7점 척도로 '매우 긍정적'은 1점으로, '매우 부정적'은 7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 중 6, 7, 11, 12 를 제외한 것은 의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 코딩한 후 통계 처리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40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776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767$

.8827였다.

4. 자료수집방법

인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대학 1, 2, 3학년 530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간호학생들에게 총 5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가 미비한 11부를 제외하고 총 519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0.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식 및 태도, 노인에 대한 경험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차이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이용된 간호학생 51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간호학생의 평균 연령은 22.1세로 21-25세가 377명(7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20세가 103명(19.9%)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12명(98.7%), 기혼이 7명(1.3%)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및 기타가 232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78명(34.3%), 천주교 64명(12.3%), 불교 45명(8.7%)의 순위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96명(18.5%), 2학년 213명(41.0%), 3학년 210명(40.5%)으로 1학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2006년부터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하면서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19)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세)	19-20	103 (19.9)
	21-25	377 (72.6)
	26세 이상	39 (7.5)
결혼상태	미혼	512 (98.7)
	기혼	7 (1.3)
종교	기독교	178 (34.3)
	천주교	64 (12.3)
	불교	45 (8.7)
	무교 및 기타	232 (44.7)
학년	1	96 (18.5)
	2	213 (41.0)
	3	210 (40.5)

2. 연구대상자의 노인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노인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노인간호 수강여부는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 432명(83.2%)로 많았으며, 수강경로는 다른 과목의 일부로 들은 경우가 63명(72.4%), 정규과목으로 들은 경우가 10명(11.5%), 단기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가 8명(9.2%), 기타 6명(6.9%)의 순위였다. 노인봉사 경험 유무에서는 노인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6명(47.4%), 노인 봉사경험이 없는 경우가 273명(52.6%)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 선호여부에서는 상관없다 233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좋다가 216명(41.6%), 싫다가 70명(13.5%)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 (n=519)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노인 간호 수강 유무	유	87 (16.8)
	무	432 (83.2)
노인 간호 수강 경로	정규과목	10 (11.5)
	다른 과목 일부	63 (72.4)
	단기 연수 교육	8 (9.2)
	기타	6 (6.9)
노인 봉사 경험	유	246 (47.4)
	무	273 (52.6)
노인간호 선호 여부	좋다	216 (41.6)
	싫다	70 (13.5)
	상관없다	233 (44.9)

3. 연구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의 노인과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조부모 생존 여부에 있어서는 생존해 있다고 응답한 간호학생들이 403명(77.6%)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노인과의 거주경험을 보면 성장과정에서 조부모와의 거주경험이 260명(50.0%)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혀 없는 경우도 219명(42.2%)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 (n=519)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조부모 생존 여부	유	403 (77.6)
	무	116 (22.4)
노인과의 거주 경험	성장과정에서 조부모	260 (50.0)
	노인부모님	40 (7.8)
	전혀 없음	219 (42.2)
아는 노인 유무	유	152 (29.3)
	무	367 (70.7)

아는 노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67명 (70.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노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지식 총점은 총 2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12.02점, 정답률은 48.06%로 최고 20점에서 최소 5점이었다.

척도에 포함된 전체 문항을 크게 신체적, 생리적 영역(11개 문항), 심리적 영역(6개 문항), 가족 및 사회적인 영역(8개 문항)의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신체적, 생리적 영역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65.38%인데 비하여, 심리적 영역은 33.98%, 가족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정답률은 34.50%에 불과하였다(<표 5>).

<표 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문항별 지식 정답률

영역	문항내용	정답수(%)	순위
신체적	노인의 대부분은 망녕(예: 기억력 손상, 지남력 장애, 치매)이 듣다. 5가지 감각(시력, 청력, 미각, 촉각, 후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334(64.4) 489(94.2)	8 1
	대부분의 노인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	377(72.6)	6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30(82.9)	4
생리적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80(53.9)	9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 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	100(19.3)	20
	대부분의 노인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251(48.4)	12
영역	노인의 50%이상이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 보통 노인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더 오래 걸린다.	262(50.5) 449(86.5)	11 2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시간이 더 느린 경향이 있다.	417(80.3)	5
	직장에서 늙은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 보다 사고가 적다.	111(21.4)	19
심리적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비참함을 느낀다. 노인들 대부분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80(53.9) 368(70.9)	9 7
	우울은 젊은이들 보다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195(37.6)	15
	노인들 대부분은 그들은 좀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	73(14.1)	22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49(9.4)	25
	대부분의 노인들은 좀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86(16.6)	21
가족·사회적 영역	적어도 5%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예: 요양원, 정신병원, 노인주거시설 등과 같은)에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모든 면에서 비슷비슷해진다.	58(11.2) 199(38.4)	23 14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155(30.3)	17
	현재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	52(10.1)	24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노인들에게 낮은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163(31.7)	16
	노인들 대부분은 최저생계비(정부에 의해 규정된)이하의 수입을 기진다.	122(23.6)	18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종류의 일을 가지기를 원한다.(가사일이나 자원봉사일을 포함)	436(84.5)	3
	2010년의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젊은이들과 비교되는) 거의 현재와 같거나 더 나빠질 것이다.	239(46.2)	13

연구대상자들의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지식문항은 “5가지 감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4.2%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보통 노인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더 오래 걸린다”가 86.5%,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가 82.9%로 나타나서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심리적 영역에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가 9.4%, 가족 및 사회적 영역에서 “현재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가 10.1%와 “적어도 5%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에 살고 있다”가 11.2%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영역에서는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영역별 지식 정답률

영역별 지식	정답수(%)
신체적 생리적 영역	3500(65.38)
심리적 영역	1051(33.98)
가족 및 사회적 영역	1424(34.50)
전체 정답률	5975(48.06)

5.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총점은 140점 만점으로 간호학생들의 평균점수는 80.09점(± 11.69)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내에 있었고, 최고점은 126점이었으며 최저점은 49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중립적인 범위(3.5-4.5)를 벗어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10개의 문항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학생들은 노인들은 침착하고, 중요하며, 남을 잘 믿고, 재주가 많고, 착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이 있고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3개 문항으로 촌스럽고, 허약하며,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6〉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

문항내용	평균(SD)
개끗하다 - 지저분하다	3.99(1.07)
잘생겼다 - 못생겼다	3.93(1.00)
세련되다 - 촌스럽다	3.50(.98)
건강하다 - 허약하다	2.97(1.16)
침착하다 - 덤벙댄다	5.10(1.30)
유식하다 - 무식하다	4.30(1.08)
똑똑하다 - 멍청하다	4.40(.96)
중요하다 - 쓸모없다	5.14(1.24)
재주가 많다 - 잘하는게 없다	4.82(1.16)
남을 잘 믿는다 - 의심이 많다	4.50(1.40)
착하다 - 못됐다	4.92(1.19)
부지런하다 - 게으르다	5.48(1.34)
재미있다 - 재미없다	3.98(1.30)
용기가 있다 - 비겁하다	4.30(.96)
불만이 없다 - 불만이 많다	3.43(1.20)
책임감이 있다 - 책임감이 없다	4.70(1.21)
명랑하다 - 우울하다	3.64(1.10)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4.85(1.25)
너그럽다 - 이기적이다	5.16(1.35)
정직하다 - 거짓말을 잘한다	4.89(1.21)
합계	80.09(11.69)

6.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연령에서 26세 이상 간호학생들이 19-20세 간호학생들보다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인 간호학생이 미혼인 간호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노인간호 관련 특성 중 노인간호 선호여부가 노인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간호를 선호하는 간호학생들일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평균 12.59점)을 나타냈다($F=7.534$, $p= .001$).

그 외 변수로 노인간호 수강 유무에 있어서는 노인간호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 수강경험이 없는 간호학생보다, 노인봉사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 경험이 없는 간호학생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간호학생들의 노인과의 관계에서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학생들이 없

〈표 7〉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n=519)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19-20	103	11.45	2.75	2.815	.061
	21-25	377	12.11	2.73		
	26이상	39	12.49	3.02		
결혼상태	미혼	512	12.01	2.76	-.396	.692
	기혼	7	12.43	3.78		
노인간호수강유무	유	87	12.25	2.70	.707	.480
	무	432	11.99	2.77		
노인간호수강경로	정규과목	10	12.08	2.07	.050	.951
	다른 과목일부	63	12.27	2.84		
	단기연수교육	8	12.07	1.73		
노인봉사 경험	유	246	11.98	2.88	-.345	.730
	무	273	12.06	2.66		
노인간호선후여부	좋다	216	12.59	2.74	7.534	.001
	싫다	70	11.46	2.90		
	상관없다	233	11.69	2.65		
아는 노인	유	152	12.23	2.89	.991	.322
	무	367	11.96	2.72		
거주경험	성장과정에서 조부모	260	11.93	2.76	2.30	.795
	노인부모	40	12.18	3.07		
	전혀 없음	219	12.08	2.74		
	합계	519	12.02	2.77		

는 경우보다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과의 거주경험과 간호학생들의 지식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거주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n=519)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19-20	103	88.89	11.08	.327	.722
	21-25	377	87.92	11.96		
	26이상	39	87.42	10.86		
결혼상태	미혼	512	88.02	11.66	-.1120	.263
	기혼	7	93.00	14.09		
노인 간호 수강유무	유	87	87.22	12.60	-.633	.527
	무	432	88.21	11.55		
노인 간호 수강 경로	정규과목	10	87.67	11.01	.238	.789
	다른 과목일부	63	87.33	11.81		
	단기연수교육	8	89.00	15.51		
노인봉사 경험	유	246	88.12	11.37	.083	.934
	무	273	88.04	2.66		
노인 간호 선후 여부	좋다	216	91.79	11.43	23.167	.000
	싫다	70	82.06	12.03		
	상관없다	233	86.54	10.73		
아는 노인	유	152	92.76	11.54	5.661	.000
	무	367	86.27	11.31		
거주경험	성장과정에서 조부모	260	89.73	11.80	6.174	.002
	노인부모	40	89.43	11.25		
	전혀 없음	219	86.01	11.32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21-25세의 간호학생들이 26세 이상의 간호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인 간호학생들이 미혼인 간호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간호학생들의 노인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간호학생들의 노인간호 선호여부($F=23.167$, $p=.000$), 이는 노인 유무($t=5.661$, $p=.000$), 노인과의 거주경험($F=6.174$, $p=.002$) 등 이었다.

노인간호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이 노인간호를 선호하는 학생보다, 이는 노인이 있는 학생이 이는 노인이 없는 간호학생보다, 노인과의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거주경험이 없는 간호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노인봉사 경험에 있어서는, 노인봉사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이 없는 간호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노인간호 수강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이 수강경험이 없는 간호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에는 상관계수($r=.208$, $p=.000$)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와 노인에 대한 태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IV. 논 의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지식 총점은 총 25점 만점에 12.02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88.11점으로 평균 정답률이 48.06%로 나타났다.

이는 Palmore(1998)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FAQ I을 이용하여 조사한 논문 6편을 분석한 결과인 평균 정답률 60.0%보다 낮았으며, 국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윤

(2004)의 50.1%,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 경미 등(2002)의 정답률 50.2%,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2002)의 50.6%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지식 정답률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의 정답률은 65.38%, 심리적 영역은 33.98%, 가족 및 사회적 영역은 34.50%로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정윤(2004)의 논문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간호사나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반면,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항별 지식 정답률을 보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지식문항은 “5가지 감각(시력, 청력, 미각, 촉각, 후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4.2%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보통 노인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더 오래 걸린다”가 86.5%,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가 82.9%로 나타나서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심리적 영역에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가 9.4%, 가족 및 사회적 영역에서 “현재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가 10.1%와 “적어도 5%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예: 요양원, 정신병원, 노인주거시설 등과 같은)에 살고 있다”가 11.2%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영역에서는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답률은 김수영 등(2002)의 연구와 양 경미 등(2002)의 연구, 김정윤(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과정 중에서 노인간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노인간호 수강여부는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 432명(83.2%)으로 많았으며, 수강경로는 다른 과목의 일부로 들은 경우가 63명(72.4%), 정규 과목으로 들은 경우가 10명(11.5%), 단기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가 8명(9.2%), 기타 6명(6.9%)의 순위로 80%이상의 학생들이 수강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간호학의 교육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4년제 대학의 80%, 3년제 대학의 58%, 대학원 과정의 63%가 노인간호학을 독립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김정윤, 2004).

그러나 노인간호학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년제 대학의 18%, 3년제 대학의 35%로 다양하게 노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대다수의 학교에서 노인간호학이 전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과목이 아니므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노인간호 교과목의 교과과정 내용을 보면, 학부 과정의 50% 이상이 전문직으로서의 노인간호, 노인간호의 이슈와 경향, 노인간호의 정책, 간호계획, 신체적인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노화이론, 노인간호의 이슈와 경향, 행정적인 측면, 간호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전시자 등, 2001) 교과과정에서 심리적 영역 및 가족, 사회적 영역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간호학생들이나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대부분이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 국한되어 이론이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적 영역이나 사회적, 가족 영역에서의 지식을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노인간호 선호여부였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26세 이상 간호학생들이 19-20세의 간호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간호학생들이 연령이 낮은 간호학생들보다는 노인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고,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의 지식을 이해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노인간호 수강여부에 있어서는 강의를 들어본 경험

이 있는 간호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Huber와 Reno(1992), Karner, Rheinheimer와 Delisi(1998), Sheffler(1995)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노인에 관한 강의나 실습이 지식을 증가시키고, 지식이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간호학생들이 노인간호를 선호할수록 노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총점은 140점 만점으로 간호학생들의 평균점수는 80.09점(± 11.69)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내에 있었고, 최고점은 126점이었으며 최저점은 4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1984)의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정윤(2004)의 80.53점,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 등(2002)의 82.08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경미 등(2002)의 태도점수 77.98점으로 중립적인 범위 내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연구 대상자 대다수가 20대에 속한 여성인 간호학생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한정란(200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태도에 관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중립적인 범위(3.5-4.5)를 벗어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간호학생들은 노인들은 침착하고, 중요하며, 남을 잘 믿고, 재주가 많고, 착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이 있고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촌스럽고, 허약하며,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정윤(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Hawkins(1996)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인, 병원에 입원한 노인, 아픈 정도가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습을 나가게 한 후 태도측정을 하게 하였

• 간호학생의 노인관련 지식 및 태도조사 •

는데, 그 결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습을 한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설명하면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간호집단은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외국의 경우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 등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습장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노인간호학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적고 실습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노인병동이나 요양원 같은 질병에 노출된 노인이 있는 장소로 실습을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간호교육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사료된다(전시자 등, 2001).

따라서 간호학생들에게 건강한 노인들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시설 참여, 성공적인 노인 강좌 참여, 노인 면담 등의 활동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는 노인간호 선호 여부, 조부모의 생존여부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였다.

노인간호 선호에 있어서는 노인간호를 선호하는 간호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간호학생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2002)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조수연(1992), 김정윤(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을 선호하는 간호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조부모의 생존여부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조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간호학생일수록,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학생일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조부모가 살아 있고, 아는 노인이 있고, 노인과 거주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이 노인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지식 및 태도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

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Armstrong, Sandilands와 Miller(1989), Courtney, Ting과 Walsh(2000), Hope(1994), Sheffer(1980), 김정윤(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서 현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 교육자 및 실무 행정가들에게 노인간호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인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대학생 519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53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519부를 자료수집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6월1일부터 6월 14일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4문항, 노인관련 특성 4문항, 노인과의 관계 3문항, 노인관련 지식 25문항, 태도 20문항으로 총 총 5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1977)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양경미 등(2002)이 한국노인 실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한정란(2003)이 개발한 노인에 대한 태도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지식 및 태도, 노인에 대한 경험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차이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25점 만점에 평균 12.02점(± 2.77)으로 정답률이 48.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 140점 만점에 평균 80.09점(± 11.69)으로 중립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를 살펴보면 노인간호 선호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도 정도를 살펴보면 노인간호 선호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노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노인 간호교육을 계획하는 간호교육자 및 임상·행정가들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함으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에 관한 지식 및 태도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rmstrong-Eather, C. A., Sandilands, M. L., & Miller, D. (1994). Attitudes and behaviors of nurses towards the elderly in an acute care sett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4, 34-41.

Compebell, M. E. (1971).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20(2), 147-150.

Courtney, M., Ting, S., & Walsh, A. (2000).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6(2), 62-69.

Han, J. R. (2000).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3), 115-127.

Han, J. R. (2004). Development of attitude scale about age group, Not Published.

Hong, Y. S., & Song, M. S. (1985).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Integration of Geronotological Nursing in Baccalaureate Nursing Curricula in Korea, *J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5(1), 36-45.

Hawkins, M. 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Hope, K. W. (1994). Nurses'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a comparison between nurses working in acute medical and acute care of elderly patients settings, *J Advanced Nursing*, 20, 605-612.

Huber, M., Reno, B., & Mcknny, J. (1992). Long-term care perssnnel assess their attitedes and knowledge of the older adult, *J of Advanced Nursing*, 17, 1114-1121.

Jun, S. J., Kong, E. S., Kim, G. B., Kim, N. C., Kim, J. H., Kim, C. K., Kim, H. K., No, Y. J., Song, M. S., Shin, K. L., Ann, S. Y., Lee, K. J., Lee, Y. H., Cho, N. O., Cho, M. O., & Choi, K. S. (2001). Survey research about Geronotological Nursing in Baccalaureate Nursing Cuurricula, *J of Korean Acad Nurs*, 31(5), 808-817.

Cho, S. Y. (1992). Nurses' Attitudes Toward Elderly Patients, *Suncheon Cheongam College*, 59-78.

Kim, S. Y., Yang, K. M., Oh, H. I., & Kim, J. S. (2002).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ogical*

- Society, 22(3), 21-36.
- Kim, Y. S. (1994).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al long-term care` types and development of elderly care program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 Kim, J. Y. (2004).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the elderly*.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The future population eseimate*,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arner, K. J., Rheinheimer, D. C., Delisi, A. M., & Due, C. (1998). The impact of a hospital-wide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 on staff's knowledge and misconceptions about aging.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9(3), 100-104.
- Lee, K. G. (1989). *Structural analysis of Korean Family*, Seoul: ILJIS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welfare of the aged the present condition.
- Palmore, E. B. (1998). *The facts on aging quiz(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371- 384.
- Sheffler, S. J. (1995). Do clinical experiences affect nursing student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4(7), 312-316.
- Yang, K. M., Oh, H. I., Kim, J. S., & Baek, Y. J. (2002).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Chosun Medical Univ, 9, 239-262.

ABSTRACT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Lee, Eun Ja(Associate Professor, Gachon Medicine and Science University)

Kang, Ik Wha(Professor, Gachon Medicine and Scienc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19 student nurses studying in university by means of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y SPSS version 10.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the respondents' knowledge of the elderly was 12.02(± 2.77) out of 25. The average score of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80.09(± 11.69) out of 140.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dents knowledge of the elderly depending on their degree of preference for giving nursing care to the elderly ($F=7.534$, $p=.001$).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depending on their degree of preference for giving nursing care to the elderly ($F=23.167$, $p=.000$), possession of living grandparents ($F=6.174$, $p=.002$), and degree of interaction with elderly ($t=5.661$, $p=.000$).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continuous teaching and education that will help increase student nurses' knowledge of the elderly and thereby positively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Key words : Knowledge, Elder, Attitude